



수품책 활동으로 '유은실 작가' 와 만나다!

월성초, 작가 만남 통해 수품책의 깊이를 더하는 독서교육

대구월성초등학교(교장 우순옥)는 지난 4일(목) '수업을 품은 책읽기(수품책)'의 일환으로 '까먹어도 될까요', '일수의 탄생'의 저자 유은실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월성초는 7월 12일(금)까지 전교

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품은 책읽기(수품책)'를 운영한다. 학생들은 수업 중 책을 읽고 주제 찾기, 핵심문장 및 장면 찾기, 질문하고 토론하기, 교육연극하기, 글쓰기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이날 유은실 작가는 1부에서 본인의 학창 시절, 작가의 꿈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동화 잘 쓰는 법 등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역할극으로 작가에게 질문하기, 책과 관련한 노래와 율동하기, 책 속 퀴즈 맞추기, 독후감상문 발표 등 즐겁고 깊이 있는 러닝페이 시간을 가졌다. 일수의 탄생으로 독후감상문을

발표한 5학년 조은성 학생은 "수품책 활동을 통해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없어졌다. 자신감도 생기면서 발표도 조금씩 잘하게 되었다.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월성초등학교>



용호초,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와 업무협약
대구용호초등학교(교장 김경숙)는 지난달 28일(금)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본부장 노성훈)와 다문화 및 비다문화 취약계층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용호초는 스포츠(농구)클래스 운영 및 학습비를 지원하게 됐다. <자료제공:대구용호초등학교>



해울고 해뜰협동조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수상
대구해울고등학교(교장 정재명) 해뜰사회적협동조합(이하 해뜰)이 2024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해뜰은 2018년 대구 최초의 학교협동조합으로 설립됐다. <자료제공:대구해울고등학교>



화동초·화원꽃들유치원, '튼튼먹거리 탐험대'
대구화동초등학교(교장 김준석)는 지난 6월 28일(금)~7월 2일(화)까지 '튼튼먹거리 탐험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난 3일(수)에는 인근의 화원꽃들유치원의 원아들을 대상으로도 진행했다. 어린 시절부터 당과 나트륨을 적게 먹는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료제공:대구화동초등학교>